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A편 501:4-15)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자중하신 아에게 네 사명을 감동하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A편 501:4-15)

160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에서 이곳 미국으로 항해하며 건
내온 102명의 창고도인들의 감사의 신앙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들은 그 배를 타고 66
일 동안의 항해와 혹독한 추운 겨울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래와 같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80톤 밖에 안되는 작은 배에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비록 평균 시
속 20일만 항해를 했으나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에 감사. 항해 중 두 사람이 생명을 잃어
자만 한 아기가 태어남에 감사. 폭풍 중에 배가 피난처되지 않았음에 감사. 파도에 쓸려 나
갔던 여자들이 다 구출됨에 감사. 인디언들의 멍에 속에서도 호의적인 원주민을 만나 잘
상처할 수 있음에 감사. 고동 소리 3개월반의 항해 기간 중 단 한 사람도 돌아가지는 사람
이 없었음에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 추운 겨울 속에 겨우 목을 열매를 얻고 그들의 반
이나 되는 50명이 배고픔과 병으로 사망 했음에도 불구하고 잃은 것보다 주신 복에
너무 감사해 드린 예배가 바로 “Thanksgiving” 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다 이런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시편기도도 동일한 감사의 제사를 드립시다. 비록 저자의 몸은 풀 한포
기도 나오지 않는 광이라고 하는 빌립보의 삶이지만 하아도 자중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그는 감사의 제사와 함께 사랑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어떤 위기와
환난을 삼가 온데만나다 할 때라도 감사의 예배와 사랑의 예물을 감사의 마음으로 드
리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
니다. 하나님은 의와 그 성화하심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시이루시는 종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성취가 되는 데
에는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이 따릅니다. 마치 창고도들의 감사의 신앙을 통해 이 땅에 하
님의 의가 성취되는 과정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서에 적힌 것을 다니엘이 알고도 그는 애전처럼 잠에 들어가 창문을 예루살렘으로 열
고 하나님께 감사하며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감사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비
록 시자의 글썽이라는 환난의 날이 그에게 다가왔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의 뜻을 약속하신대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은 성행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어떤 소유의 크기에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여러분들의 감사의 크
기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행복해 진다. 감사하는 마음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함이 충성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감사의 행복을 아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만 성취하고 버린
보면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지 못할 조건은 내게는 존재하지 않음
을 깨닫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평생이나 영원으로 감사할 수 있는 주님만
기사의 감사의 조건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말씀에서 감사의 두 아들(동인 동
신을 죽인 언젠서 천국을 용서하고 자사의 이들로 감아 주의 종으로 만드신) 그 사랑과
용서 그리고 감사함의 능력처럼 말입니다. 그가 감사의 예물로 당시 만원이란 천 재산을
드린 것처럼 오늘 시편 기사의 감사와 사랑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 받으
시고 환난 날에 우리 모든 세대를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2024년 표어

“함 영혼을 품어 열매 맺는 생명의 공동체”

너희 생애에는 어떤하나만일 어떤 사람이 양 배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견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18:12)

일반전회	교향교회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시
드림 워십	주일 오전 8시
글로리 워십	주일 오전 10시
블레싱 워십	주일 오후 12시
청년예배	주일 오후 12시
영아예배	주일 오전 10시
수요예배	수요일 저녁 8시
수요종교기도회	수요일 저녁 8시
오전 예배부	주일 오전 10시
주일 오후 12시	주일 오후 12시
유치부	주일 오후 12시
초등부	주일 오후 12시
중고등부	주일 오후 12시
리브미션부	주일 오후 12시
세나리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유 아 부	최수진 시모 (917)526-1344	1 선 교회	김성준 목사 (617)949-1118
유 처 부		2 선 교회	최순성 목사 (917)246-9493
중 고 등 부	최주안 전도사 (646)662-0691	3 선 교회	최순성 목사 (917)246-9493
리 브 미 션	박영애 전도사 (718)737-1643	4 선 교회	이재환 목사 (646)398-0228
청 년 부	김성준 목사 (617)949-1118	5,6선교회	이재환 목사 (646)398-0228
영 아 회 중	김 목사 (201)679-2924	네 팔	다넬 바츠넬 목사 (201)927-0220
행	최 최순성 목사 (917)246-9493	몽	골 투글들 목사 (646)467-2675
양 육	최순성 목사 (917)246-9493	다민족지역	양영란 전도사 (917)533-9511
새 기 록 부	최순성 목사(성) 박수진 전도사(부)	시나리아역	이재환 목사 (646)398-0228
신	범 부 박수진 전도사 (646)642-9331		

2024년 12월 1일

1부 예배 8:00am | 2부 예배 10:00am

드림 워십 인도: 최순성 목사
 글로리 워십 인도: 김성준 목사

3부 예배 12:00pm

블레싱 워십 인도: 최순성 목사

*경배와 찬양

*찬양

*기도

*성경본문

*찬송

*기도

(*표는 가능하면 일어서서 / Stand if able)

단체 기도교과(타인위너 케ابل 487) 매주 금요일 저녁 9시(반방향)
 토요일 오전 11시(예배향)